

미국에서 활동중인 한국의 도예가

김은숙

글/사진 윤태일 자유기고가



Kim Eun-sook

김은숙 선생의 집을 처음 들어서면 온 집안에 미만에 있는 그 예술적 아우라(Aura)에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분위기가 동양적이란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곳이 미국 동남부 테네시주의 작은 과학도시 오크리지(Oak ridge)인가?’ 하고 의아해 할 때가 있다. 테네시 대학 건축과 교수인 존 코딩톤(John Codding-ton)의 도움으로 1991년에 세워진 작업장 겸 전시공간인 이 집의 별채가 정원과 어울려져 풍겨내는 그 분위기 자체가 예술이다. 마치 사울에 있을 때 가끔 들르면 인사동의 야외 미술관인 경인미술관이나 문향다원(聞香茶園)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곤 한다. 요즘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도라지꽃을 비롯하여 갖가지 화초들, 물고기나 한가로이 장난치는 작은 연못, 별채 안에 그득한 갖가지 도예작품들과 동양화 그림

들, 그리고 무심히 눈길만 던지는 정원 구석구석마다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는 공예품들... 특히 바닥의 타일을 유심히 보면 한국사람들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기 쉬운데, 그것은 재미있게도 최후의 12달 무늬를 소대로 한 작품들이다.

아마도 이것은 예술

작품들이 꼭 생활과 동떨어진 별도의 전시 공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는 선생의 예술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리라. 오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예술(Art)과 생활 속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기술(Craft)의 구분 등 양의 전통미학은 무의미하게 여겼다고 선생은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예술 장르보다도 도예라는 예술 작품들이 특히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예가로서는 꼭이나 자연스러운 예술관이다. 자연스러움과 함께 김은숙 선생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예술적 덕목은 자유로움 혹은 유연함(flexibility)이다.

“도예라고 해서 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음악 등 다른 예술 장르와도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각이나 그림을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도예만을 고집했던 사람들보다 더 창의적인 작품을 내놓는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업스테어스 화랑(Upstairs Gallery)에서 전시된 선생의 작품을 바로 그러한 그분의 예술관을 잘 드러낸다. 사실 김은숙 선생은 도예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도예작품은 상당히 회화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음악적이기까지 하다. 그의 도예 작품들 중에는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형태의 문양보다는 과감한 회화적인 미지들로 장식된 작품들이 많다. 특히 아래 밑단은 점토로 랩트 장식 대를 만들고, 동양화를 한지에 그려서 등그렇게 말아 그 위에 등잔갓으로 얹은 선생의 작품은 도예와 회화를 절묘하게 접목시킨 좋은 예이다. 또 케이 딜론(Kay Dillon)이라는 미술 비평가는 <오크리지 사람들(The Oak Ridger)>라는 신문의 전시회 리뷰 기사에서 이빈의 전시회 작품 중 실내용 분수 공예품에서 올라나오는 물소리의 음악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여러 예술장르를 넘나드는 김은숙 선생의 유연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문화의 체험이 선생의 유연함을 가능케 했으리라. 또 대학원에서는 도예를 전공했지만 학부 전공은 미술이 아니었다. 원래 이화여자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기 전에 영어를 가르쳤던 영문학도였다. 하지만 그 전에도 윤보 김기창 화백의 문하생이었던 이모의 영향으로 동양화 등 전통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선생이 도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에 비비안 루(Vivian Roux)라는 스위스 도예가의 전시회였다. 그 전시회를 보고는 간단한 나머지 그때부터 오크리지 아트센터에서 루에게서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도예를 시작한 지 20년이 상 지나 어느덧 도예가로서의 이름도 알



지난 2월 개인전에 선보인 전시작품